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송가 580장)

무궁화 꽃을 심으며 울려 퍼진 나라사랑 노래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가면 일제 강점 시 나라사랑을 실천한 한서(翰西) 남궁억(南宮 億, 1863-1939)선생의 묘소와 함께 기념 예배당이 서 있다. 한서교회엔 한옥의 예배당이 복원되어 있는데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다. “1919년 9월 한서 남궁억 선생께서 이곳에 예배당을 지으시고 ‘모곡학교’를 설립하여 ‘무궁화 운동’을 전개하셨다. 1933년 11월 ‘무궁화 사건’으로 선생께서 구속되시고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뜯겨 폐교된 것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 것이다.”

서울 출신인 남궁억선생은 탁월한 영어 실력으로 고종황제의 통역관과 전권 대사의 통역관으로 일하였고, 해외 순방을 통해 서양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개화에 힘썼다. 1895년 내부(內部) 토목국장 재직 시엔 주택개량과 서울 종로거리를 확장 정리하기도 하였는데 지금의 탑골공원은 바로 그가 건립한 것이다.

1896년, 독립협회를 조직한 독립 운동가이며, 1898년엔 ‘황성신문’을 설립한 언론인으로서 일제 침략 야욕을 폭로하고 나라의 독립과 자존의 민족운동에 힘썼다. 그는 흥화학교, 현산학교, 배화학당, 상동청년학원의 교사를 지낸 교육자로서 국어, 국사 교과서를 저술하여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소명을 일깨운 애국자이다.

1918년, 병약하여 모곡(牟谷)에 내려가 요양하면서도 교회와 모곡학교를 세웠는데 이곳에서 ‘무궁화동산 꾸미기운동’을 벌여 암울한 일제하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민족혼을 일깨운 계몽가이기도 하다. 그는 이곳에서 1921년, 노고산과 수산이 홍천강과 어우러진 강산을 바라보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무궁화심기운동과 함께 부른 이 찬송은 삼시간에 전국을 휩쓰는 히트곡이 되었고 이에 당황한 일제는 1937년 드디어 전국적으로 이 찬송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고 우리의 국화인 무궁화까지 모조리 뽑아 버렸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는 차디찬 겨울, 일제 치하에서도 “봄 돌아와 밭 갈때니”라 노래하며 장차 맞이할 해방을 그렸고, “곡식 익어 거둘 때니”하며 이 땅에 이루어질 번영된 조국을 내다보았다.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인 도니제티(G. Donizetti, 1797-1848)의 오페라 ‘루치아’(Lucia di Lammermore) 중 2막에 나오는 힘차고 경쾌한 합창이 남궁억 선생의 시와 만나 우리국민에게 더욱 애국심을 꽃게 한다. ‘삼천리 반도’에서 ‘슬도미술’하며 조약진행하는 음형(音形)은 잠자는 민족을 깨우는 기상나팔소리이며, “하나님 명령”에서 ‘도미술도’는 그 옛날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소리로 들린다. 바로 이 소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트럼펫 소리로 들려오길 바란다.



김명엽

연세대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역임
현)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현) 서울버하합창단 지휘자
현) 남대문교회 시온찬양대 지휘자